

“학생부 내신보다 종합전형이 더 유리”

서울 주요대학 입학사정관이 말하는 학생부종합전형 대비책 광주 타지역보다 종합전형 준비 미흡 학교 프로그램 적극 참여해야 큰 성과

“불리한 여건을 역이용해 강점으로 만든다면 유리한 여건의 학생들보다 더 유리해진다.” <김경숙 건국대 입학사정관>
“500명이 꽃동네에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모두가 같지는 않다. 대학은 그 중에서 1명을 찾는다.” <박정선 연세대 입학사정관>
“학교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여기에 진지한 고민까지 더해진다면 좋은 성과를 얻을 것이다.” <이석록 한국외대 입학사정관>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불만만 하지말라. 수행평가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 된다.” <임진택 경희대 입학사정관>
“대학은 학교를 보고 뽑지 않는다. 창의적 인재를 원한다. 독서를 많이 하고, ‘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답이 없는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라.” <진동섭 서울대 입학사정관>

서울 주요대학 입학사정관들이 대학입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하는 수업생들에게 한 조언이다. 특히 이들은 “선생님을 믿는 학생들이 목표를 이룬다”며 “학생부 작성 주체인 선생님을 믿고 따르라”고 강조했다. 또 광주 학생들의 학생부 종합전형 도전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 이는 대학입시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5일 오후 2시 광주시 북구 오치동 광주교육연수원 대강당에는 2000여명의 학생·학부모들의 눈이 빛났다. 장광재 송덕고 진학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학생부 종합전형 이해와 진실 토크쇼’를 주시하고 있었다.

학생·학부모를 대변하기 위해 나온 패

널들(문형수 고려교 교감, 김태진 대구교육청 장학사, 조만기 경기교육청 장학사)은 서울 주요대학 입학사정관들에게 곤혹스런 질문을 쏟아냈다.
“종합전형에도 내신 등급의 커트라인이 있는 것 아니다”, “학생부에 기재된 10가지 영역 중 중점적으로 보는 3가지는 뭐가”, “전공 적합도는 학생부 중 어디를 보고 평가하는가” 등등.

이에 대해 입학사정관들은 “내신 커트라인은 없다. 교과성적보다는 교과활동을 더 주의깊게 본다”고 답했다. 국어를 좋아하고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창의적체험활동 영역에서 동아리 활동을 살펴보고, 교

과학습의 세부역량 및 특기사항을 통해 학업역량을, 행동발달에서 총평을 연계해 살펴보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동아리활동에서 특정한 동아리를 선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어떤 동아리인가 보다는 동아리에서의 주체적인 활동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선형학습도 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했다. 서울대 공대의 경우 공업수학은 대학 커리큘럼이 고교에서 배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수업을 원서로 진행하기 때문에 어학실력은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관심있는 분야에 도전하라고 강조했다. 관심만 있고 행동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궁금한 사항은 해당 대학·학과에 직접 연락하거나 홈페이지를 잘 살펴보면 원하는 인재상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학생들의 질문도 이어졌다. 한 여학생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성적이야 아

니라 발표력 등 활동을 본다는데 학교에서 기회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보다 차별을 받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임진택 경희대 입학사정관은 “공감한다. 학교가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A학교의 경우 학생 대부분이 정시가 아닌 수시로 대학 진학을 하는데 학교는 정규수업뿐만 아니라 방과후까지 수는 공부만 시키고 있었다. 너무 답답함을 느꼈다”며 학교의 변화를 촉구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28일 오후 2시 조선대 해오름관에서 ‘수박먹고 대학 가자’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임시전문가 박권우 이화여고 입학실장을 초청해 고3 담임교사 연수를 진행한다. 또 29일 오후 2시에는 광주정보교육원에서 서울대 입학사정관 4명을 초청해 ‘교육과정과 입시’를 주제로 고1·2 담임교사 연수를 이어간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25일 광주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광주시교육청 주최 ‘2015 광주 진로진학박람회’에서 서울 주요대학 입학사정관들이 ‘대학입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토크쇼를 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37 일몰 15:41
해질 19:40 월출 01:32

열대야에 짜증나는 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흐리다.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다. 예상강수량 5~30mm. 열대야는 계속.

◇지역별 날씨 (℃)
광 주 가금호리교비 24/30 보 성 가금호리교비 23/29
목 포 가금호리교비 22/27 순 천 가금호리교비 24/30
여 수 가금호리교비 24/28 영 광 가금호리교비 24/28
나 주 가금호리교비 24/30 진 도 가금호리교비 22/27
완 도 가금호리교비 23/28 전 주 가금호리교비 24/28
구 레 가금호리교비 23/31 군 산 가금호리교비 23/27
강 진 가금호리교비 23/28 남 원 가금호리교비 23/29
해 남 가금호리교비 23/28 흑산도 가금호리교비 21/25
장 성 가금호리교비 23/28

◇바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앞바다	남~남서 0.5~1.5	남~남서 0.5~1.0
남부 앞바다	남~남서 1.0~2.0	남~남서 1.0~2.0
남해 앞바다	남서~서 1.0~2.0	남서~서 1.0~2.0
남해 서부 앞바다(동)	남서~서 2.0~4.0	남~남서 1.0~2.0
남해 서부 앞바다(서)	남서~서 2.0~4.0	남~남서 1.5~2.5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9:50	03:48
	23:01	15:47
여수	밀물	썰물
	05:12	11:18
	18:29	23:30

◇주간 날씨

28(화)	29(수)	30(목)	31(금)	8/1(토)	2(일)	3(월)
☁	☁	☁	☁	☁	☁	☁
24/30	24/30	25/32	25/32	25/32	25/33	24/33

◇생활지수

- 식중독 주의
- 운동 40
- 빨래 60

“광주공원 친일파 선정비 철거·단죄비 검토”

친일 인사의 선정비(善政碑)가 최근 광주지역에서 잇따라 발견된 것과 관련해 광주시가 선정비를 철거하거나 단죄비를 설치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남구 광주공원에서 발견된 친일인사 윤웅렬(광주일보 21일자 7면)과 이근호의 선정비에 대해 관련 시민단체·학계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선정비를 철거하거나 단죄비 설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단죄비 설치하는 친일인사의 잘못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그들의 친일행각을 기록한 별도의 비석을 선정비 옆에 세우는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수록된 윤웅렬과 이근호의 선정비는 두 사람이 한발 전남 관할사 재직시절 선

정을 베풀었다는 이유 등으로 세워졌다.
선정비는 각기 다른 곳에 있다가 1957년 공원 입구로 옮겨졌으며 1965년에 현재 위치한 공원 동쪽 언덕에 비석을 모으면서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공원 내 향교 옆 사적비 군에는 윤웅렬과 이근호 선정비 외에도 선정을 배운 관리들을 기리는 28개의 비석이 함께 있다.
노원기 광주시 공원녹지과장은 “친일인사 선정비 발견을 계기로 도시공원 내에 있는 다른 비석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추가로 친일행위가 증명된 인사들의 비석이 나오면 철거 또는 단죄비를 설치해 역사교육장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lucky@kwangju.co.kr

변호사 업계 수임관행 대변혁 예고

대법원, 변호사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 전관 예우 근절 속 높은 착수금 부담 시각도

법조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앞으로 변호사들이 형사 사건을 맡으면서 구속영장 기각이나 불기소, 보석, 무죄·집행유예 판결 등을 조건으로 착수금과 별도로 의뢰인에게 받은 ‘성공보수’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이다.
변호사 업계의 수임 관행에 변화가 불가피해졌지만 판결로 “전관 변호사들의 착수

금만 높아지게 될 것”,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유인책이 사라지면서 무죄 판결을 다루는 피고인들이 손해볼 수 있다”는 부정적 시각도 적지 않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 24일 “형사 사건에 관해 체결된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로 결부시켜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사법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취지로 허모씨가 “성공보수 1억원은 지나치게 많아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니 이를 돌려달라”며 변호사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는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할 위험도 있는 만큼 민법 103조에서 정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라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형사사건에서 ‘성공’은 불기소나 구속영장 기각, 무죄와 같은 수사나 재판 결과가 해당하는데, 이를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일반적 도덕관념에 어긋나고 건전한 사회질서에도 위반한다는 취지다.
다만, 대법원은 그간에는 성공보수 약정이 유효하다는 견해를 보여왔던 만큼 이번 판결이 내려지기 이전에 체결된 성공보수 약정은 유효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광주지역 변호사 업계에서는 “전관 예우 근절 기대감” 외에도 “(전관들의 경우) 성공보수를 받지 않는 대신, 높은 착수금을 받는 게기가 될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도 적지 않다. 초기 투입되는 변호사 비용이 많아지면서 서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교육청 부교육감 선대무씨

전남도교육청 부교육감에 선대무(57·사진) 전남대학교 사무국장이 임명됐다.
선 선임 부교육감은 보성 출생으로 광주 대동고와 전남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원 교육학 석사과정을 마쳤다.
1984년부터 해남 현산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교육현장 최일선에서 경험을 쌓았고, 1987년 제31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교

육관료가 됐다.
교육부 교육정보화 기획과장, 국무조정실 교육정책과장, 서울대 연구진흥과장,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문화과장, 한국해양대 사무국장 등 교육행정 분야 주요 직책을 두루 거쳤다.
한편, 정병걸 전남 부교육감은 충북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자리를 옮겼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JTCC GOLF 2015 골프아카데미 왕중왕전 메인 협찬사

오픈기념 100구좌 한정판매상품 마감임박!

“모든분들이 만족하십니다!”

NO.1 골프선불카드 에스골프 선불카드

전국 300곳 골프장 (대전, 충남 명문골프장)포함

그린피(세금포함)+카트비 전액지원

광주지사OPEN기념 (한정100구좌) 입금계좌 : 국민은행 659001-04-042641 (주)삼성회원권

구분	가입금액	회원구성	이용기간	연 이용횟수	월 이용횟수	공통사항
S-싱글	350만원	기명 1인	3년	총 40회 (년 15회)	주중 3회 또는 주중 1회, 주말 1회	그린피(세금포함)+카트비 전액 무료지원
S-트윈	670만원	무기명 2인	3년	총 80회 (년 30회)	주중 6회 또는 주중 2회, 주말 2회	
S-VIP	1,320만원	무기명 4인	3년	총 160회 (년 60회)	주중 12회 또는 주중 4회, 주말 4회	

*VAT포함 금액입니다.

SG에스골프만의 혜택

1. 전국 골프장 이용가능
2. 비즈니스 활용(무기명 4인~최고 만족도)
3. 라운드 후 식음료, 캐디비만 내시면 됩니다.

문의전화 (광주지사)
062) 415 - 8811

본사 서울 1566-9799

지사 부산 (경남.부산지역) 051)916-9700
경남 (경남.부산지역) 051)916-7070
대전 (충남.대전지역) 042)320-7800
대구 (경북.대구지역) 053)248-6666
울산 (경남.부산지역) 052)260-4575

Famile co

SAMSUNG MEMBERSHIP
삼성회원권

BOOKING G B MALL M S
골프부킹사이트
www.bookingmall.co.kr

SG 에스골프

BOOKING H T MALLS C G
호텔/콘도예약사이트
www.bookingmalls.com

한진관광 (타워벨리스점)
http://tp.kaitour.com

검색창에 **부킹몰** 을 치세요.
http://www.bookingmall.co.kr